

KLTA NEWS + 2012

남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최근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등 산림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시적인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는 지정위는 영남지역 255개소의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에 대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심의된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지점검과 연차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지정위 구성을 계기로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영남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림·산림복지 등 입법화 논의해 봅시다"

국회의원연구모임 나무심는사람들,
산림청과 미래산림비전 심포지엄



산림·임업 관련 정책 및 입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산림청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산림 복원 문제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산림청은 1일 낮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대표의원 강기정)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비전 공유 심포지엄'을 열었다. 나무심는사람들 창립 기념행사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등 나무심는사람들 소속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이돈구 산림청장을 비롯해서 산림청과 녹색사업단 및 임업관련단체 관계자, 산림학과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한 북한산림 복원',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산림복지' 두 주제에 걸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쉼터이자 삶터로 재조명받고 있는 산림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산림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북한 산림의 현황을 설명들은 뒤 황폐산림 복구 및 남북 산림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지금은 숲이 사람을 가꾸는 시대"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숲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즐겁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도 "실현가능한 북한산림 복원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산림복지 관련 정책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이 열리는 동안 나무심는사람들 소속 의원들은 국회 내 의원동산 입구에서 산딸나무를 심는 창립기념 식수행사를 가졌다. 지난 6월 국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된 나무심는사람들에는 강 의원 이외에 연구책임의원인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명숙 정갑윤 전병헌 신성범 이찬열 전해철 김윤덕 박완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진아 사무관(042-481-4091)

세계최고 해양형수목원 조성 첫단추 꿰다



전국 최초로 해안 간척지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 수목원의 조성 방안을 토론하고 외부 의견을 듣는 국제 심포지엄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총리실과 산림청, 전라북도, 국립수목원의 관계 공무원과 국내 공·사립 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관계자, 미국과 호주 등의 해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마이크 모운더 미국 플로리다대 교수가 '해양형수목원으로서 차별화된 수목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뒤 크리스토퍼 던 미국 하와이 대학교 라온식물원 원장, 호주 식물원조성 컨설턴트 마크 리처드슨씨, 이정덕 전북대학교 교수, 현정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식물원 조성 선진사례를 발표하고 세계적 흐름과 발전방향 등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새만금 간척지 내에 200ha 규모로 만들어 국내 도서 및 해안지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해안식물을 수집·보존하는 세계 유일의 해안식물연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다른 수목원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형 수목원으로 자리잡을 방안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김명중 사무관(042-481-4237)

"승용차 10% 덜 타면 소나무 1,7그루 심는 셈"



산림과학원, 주요수종탄소흡수량 발표..."조림-벌채 활발히 해야 탄소저감" 축구장 넓이에 해당하는 소나무 숲은 중형 승용차 3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년생 소나무 10그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만큼의 이산화탄소(CO2)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흡수·배출 산정기관인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숲의 탄소흡수량을 계량할 공식 지표인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3212곳의 숲을 조사한 뒤 기후변화협약이 지정한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작성한 이 지표는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을 이루는 8개 주요 수종의 나무 나이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CO2 흡수량과 1그루당 수량, 배출된 CO2 1톤을 상쇄하기 위해 심어야 할 나무 수 등에 대한 국가 표준을 담고 있다. 숲의 탄소흡수량에서 배출량을 뺀 나머지 탄소가 나무에 고정돼 성장에 이용되는 데 착안한 이 지표를 적용하면 숲 1ha(100m×100m)는 매년 10.8t의 CO2를 흡수한다. 따라서 축구장 크기(105m×68m, 0.68ha)의 30년생 소나무 숲은 매년 1만5000km를 주행하는 승용차 3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셈이다. 또 30년생 소나무 10 그루는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배출되는 양만큼의 CO2를 빨아들인다. 이 지표를 적용하면 승용차 1대가 1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어린 소나무 17그루를 심어야 한다. 승용차 사용 빈도를 10% 줄인다면 매년 소나무 1.7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는 얘기다.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나무에 비유해 알기 쉽게 만든 이 지표가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지표에 따르면 30~40년생 소나무, 잣나무, 낙

엽송, 참나무 등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우리 숲은 탄소저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이가 들면서 생장이 둔화된 숲은 탄소저감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림-숲가꾸기-벌채로 이어지는 목재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오래 된 숲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탄소저감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이경학 (02-961-2871)

산림청,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국민권익위로부터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도한 우수기관 선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신청을 받은 뒤 1차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11월 23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관인증서 및 인증패를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수여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년간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행정 서비스를 더 개선해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부담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042-481-4281)

날씨전령사들 “산불예방 함께 해요”

KBS·SBS·OBS 기상캐스터와 척수장애인 등,
17일 청계산서 산불조심캠페인



각 방송사에서 기상 상황을 전달하는 인기 기상캐스터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등산객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는 캠페인이 열린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4일 낮 12시 30분부터 4시간동안 서울 서초구 원지동 원터골 청계산 입구에서 KBS, SBS, OBS, TV조선, 연합TV 등 방송사 남녀 기상캐스터들과 산악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장애인 6명, 이돈구 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 한국트레킹연맹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가을철 산불방지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상캐스터는 이익선, 김혜선 이설아(이상 KBS) 조경아 최윤정(이상 SBS) 조아

라(OBS) 임지혜(TV조선) 김지은(연합TV)씨 등 18명이다. 이들 중 OBS에서 기상정보를 안내하는 김장환씨는 이날 참석하는 유일한 남자 캐스터다.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산불조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기상캐스터들은 등산객들에게 산불조심을 강조하면서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등산객과 사진찍기, 사인해 주기, 현장 음악회 등의 이벤트를 마련한다. 또 척수장애인들과 함께 옥녀봉을 등반하면서 주변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권창환 사무관(042-481-4255)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세계최고”

산림병해충 방제품질행정 ISO9001 취득...기술·행정 국제적 공신력 확보



우리나라의 산림병해충 방제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이 입증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8일 오후 ISO 인증수여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품질행정 ISO9001’ 인증서를 받았다.

ISO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규격이다. 이번 ISO9001 인증은 산림청이 기후 및 식생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산림병해충 방

생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수준의 방제 및 관련행정을 성공적으로 펼쳐왔다고 공인하는 절차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 등 네 단계 평가를 거쳐 산림청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산림청은 ISO9001 인증취득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산림병해충 방제행정의 신뢰도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규격에 맞는 방제행정을 추진할 수 있어 업무범위와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산림병해충 방제행정?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아 왔다. EU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한국 방제기술·행정을 도입했고 몽골 시베리아솔나방 방제에 한국의 방제기술 노하우가 전해지기도 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행정·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자부할 수 있다."며 "국제인증 취득에 걸맞은 산림병해충 방제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안진수 사무관(042-481-4076)

국립중앙수목원 국제심포지엄

5일 영국·독일 등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들, 도심형수목원 역할토론



세종시에 들어서는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중앙수목원의 조성방향과 운영방안을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국제심포지엄이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성동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열린다.

'도심형 수목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과 세종시 출신 이해찬 국회의원, 국내외 학계 전문가 및 연구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공·사립 수목원 관계자를 비롯해 리처드 데버렐 영국 큐가든 식물원장, 수잔 레너 독일 뮌헨식물원장, 토마스 보슈 독일 베를린다렘 식물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장진성 서울대 교수가 첫째 세션 좌장을 맡아 영국 이든프로젝트의 존 앨리슨 박사, 영국 큐가든 식물원의 리처드 월포드 박사, 독일 뮌헨식물원의 틸 헤겔 박사, 독일 베를린 다렘식물원의 알버트 디터 스티븐 부원장 등과 함께 영국과 독일 식물원의 조성 운영 및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이를 국립중앙수목원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둘째 세션에서는 신준환 국립수목원장을 좌장으로 김주환 가천대 교수, 이재근 상명대 교수, 황재훈 충북대 교수,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오한진 대전일보 국장 등 수목원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이 될 국립중앙수목원은 산림청이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세종시 중앙녹지공간 65ha에 1374억원을 들여 만들고 있다. 🌳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김명중 사무관(042-481-4237)